

“상무대 관련 서원장 80억유용”

스님 2백여명 시위 대선때 김영삼후보 자금 제공 주장

94.3.22

상무대 이전공사비 정치자금 유입문제가 불교계 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스님들이 거리시위와 적극적인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불교계 내부의 진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앙승가대생 등 스님 2백여명은 21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 정문 앞에서 상무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대한불교 조계종 서의현 총무원장이 80억원을 받아 대선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다며 이 사건의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며 연좌시위를 벌였다.

스님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92년 당시 전국불교신도회장이던 조기현(구속중) 청우건설 회장이 상무대 교외이전 공사를 맡으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6백99억원 가운데 80여억원을 대구 동화사 통일약사대불 건립비로 사 총무원장에게 전달했다”며 “그러나 서 원장은 이 돈을 민자당 김영삼 후보의 대선 선거자금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스님들은 서 원장의 사퇴와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통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정법구현불교도협의회(회장 영담 스님)도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5층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무대 이전사업 거액공사대금 횡령사건의 진상을 자체조사할 7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